

A Study on the Happiness of Adult Learners Majoring in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Soon Ho Park¹, Si Yung Kim^{2*}

¹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aegu Health College, Professor

² Dept. of Speech-Language Therapy, Daegu Health College, Professor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happiness and the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among adult learners enrolled in the fields of speech-language therap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s. It also aim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exploring support strategies to enhance their academic satisfaction and personal well-being.

Methods: The study involved 149 pre-service speech-language pathologists (pre-SLPs) and 97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re-ECTs), totaling 246 participants.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flourishing (MMF) was used to measure happiness.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IBM SPSS Statistics 26.0. Frequency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demographic and happiness-related variable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ssessed the level of happiness in campus life and its sub-factors. Independent samples *t*-tests and one-way ANOVA were conducted to examine differences in happiness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Results: The average level of overall happiness was found to be 7.13 (± 2.13). Among the sub-factors, 'engagement' scored the highest, followed by 'meaning', 'relationships', 'positive emotions', and 'achievement' in that ord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gender, major, grade, age, or educational background. However, factors such as living arrangements, employment status, motivation for attending college, amount of personal time, hobbies, family relationships, friendships, academic performance, and sleep quality were shown to influence happiness.

Conclusions: When the happiness of adult learners is improved, students' academic satisfaction will increase. Therefore, happiness-focused education for pre-SLPs and pre-ECTs, which contributes to their future job satisfaction, should be considered necessary. I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a resource to help cultivate SLPs and ECTs with high levels of happiness in the future.

Keywords: Adult learners, happiness, engagement, subjective well-being

Correspondence: Si Yung Kim, PhD

E-mail: ksy2188@hanmail.net

Received: May 26, 2025

Revision revised: June 25, 2025

Accepted: July 31, 2025

ORCID

Soon Ho Park

<https://orcid.org/0000-0002-6523-2342>

Si Yung Kim

<https://orcid.org/0000-0002-7204-9300>

1. 서론

최근 한국 사회는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사회 환경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진다. 2023년 교육통계분석에 의하면 대학의 경우, 2014년 이후 18~24세 입학생은 감소하는 반면, 40세 이상의 입학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KESS, 2025).

언어치료학 분야에서도 성인학습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을 제 2의 직업을 위한 재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들을 위한 새로운 기술 습득 교육 및 교육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된다(Kim & Kim, 2025). 특히, OECD 성인역량조사에서 대한민국

국의 성인은 언어능력, 수리력, 적응적 문제해결력 점수가 OECD 평균보다 낮고, 연령과 학력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평생교육 체계와 직업교육의 혁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되었다(KRIVET, 2024). 이에 따라 2024년 교육부 예산에서는 검정고시 지원 및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을 증가시켰고(Ministry of Education, 2024), 성인 학습자의 대학 진학 요건을 완화하는 등, 평생교육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성인학습자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등, 삶의 불균형을 경험하기도 한다(Chung & Kim, 2018; Joo, 2025). 선행 연구(Ju & Yi, 2024)에 따르면 일, 가정, 학업을 병행하는 경험은 신체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충에도 불구하고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데는 다양한 동기와 구체적인 목적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Ju

Copyright 2025 © Korean Speech-Language & Hearing Association.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와 Yi(2024)는 성인학습자들이 질 높은 삶과 노후 경제활동을 위해 대학진학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들은 학업과정에서 즐거움, 활력, 몰입, 보람, 자부심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면서 행복한 삶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성인역량조사(PIACC)에 따르면 OECD 평균 약 75%의 성인 삶의 만족감을 보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55% 이하의 성인만이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KRIVET, 2024). 삶에 대한 만족감은 행복,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안녕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셀리그만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의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을 각각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이라고 밝히고 있다(Seligman, 2006). 즉, 삶에 대한 만족감은 행복과 통용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Han et al., 2014), 많은 연구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Choi, 2022; Kim, 2015; Seligman, 2020). 성인학습자가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은 개인적인 성취를 통한 자아실현에 해당한다. 이들은 뒤늦은 대학 생활에서 경험하는 소속감과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 새로운 학문에 몰입하며 느끼는 학문적 성취, 자신의 취업 등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행복감에 관련한 연구는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대상별, 주제별, 변인별로 다양하다.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Cha & Lee, 2024; Han et al., 2014; Hwang, 2017; Lee & Kim, 2019; Park & Choi, 2022)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유아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생활하는 직무의 특성상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유아의 정서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예비유아교사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로는 행복감과 효능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Nam & Lee, 2015; Ryu, 2021), 행복감에 대한 인식(Song & Lee, 2024) 등이 있으며, 특히 교직의 특수성과 관련한 교수효능감, 교직 열정 등은 행복감과 관련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성인 학습자가 아닌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행복감에 관한 연구로는 학위과정에 있는 학습자의 평생학습 경험이 행복감에 주는 영향력(Lee, 2014), 박사과정생의 행복경험을 분석한 연구(Lee & Park, 2019), 성인학습자의 행복한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Ju & Yi, 2024) 등이 있다. 이들은 다양한 전공과 분야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그러나 언어치료 분야에서는 행복감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언어치료분야를 비롯하여 유아 대상 관련 직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들의 생활 전반에서의 행복감을 알아보고, 이들의 학업만족도와 개별 행복감 제고를 위한 지원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인성과 연령, 효능감, 직무만족, 스트레스, 대인관계와 사회적 지지, 거주형태, 경제활동 여부, 개인적 시간을 갖는 정도, 취미, 학업 성적, 수면의 질(Cho & Nam, 2011; Shin & Won, 2024; Song, 2020; Won & Lee, 2015) 등이 있다고 보고된다. 또한 유아교사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높은 만족감과 가치 인식을 지

닐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무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데 행복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an, 2014; Lee & Kim, 2019; Park & Choi, 2022). 즉, 행복감이 높은 교사는 문제해결능력, 교수효능감,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행복감이 낮은 교사는 아동학대의 잠재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Cha & Lee, 2024). 따라서 언어재활사의 높은 삶의 질과 행복감은 언어재활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행조건이 된다.

Lyubomirsky(2008)는 행복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노력하여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증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행복감은 교육적 개입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아 관련 직종을 지망하는 성인학습자의 증가 추세에 따라, 이들의 행복감을 알아보고 행복감 제고를 위한 지원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유아를 포함한 대상자와의 대인관계가 주된 직무당사자들의 행복감은 대상과의 상호작용과 권리 존중, 기관에서의 만족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Kim & Baik, 2024; Won & Lee, 2015).

따라서 대학에서 영·유아의 발달 및 재활, 치료 등을 학습하고 있는 예비취업자의 행복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행복감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은 매우 의미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언어치료학과 및 유아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행복감의 정도와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대학생활에서의 행복감 정도는 어떠한가?
- 둘째, 하위요인별 행복감 정도는 어떠한가?
- 셋째, 특성 변인에 따른 행복감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예비언어재활사 149명과 예비유아교사 97명, 총 246명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인학습자는 각 대학입시 전형에 근거하여 성인학습자 기준 연령 중 가장 어린 연령인 23세 이후 대학 입학자이거나, 23세 이전이라도 입학당시 1년 이상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인구통계학적 및 행복 관련 변인을 질문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 참여자의 정보는 Table 1과 같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행복감 측정을 위해 Kim(2015)이 변안한 다차원적 행복 척도(multidimensional measure of flourishing: MMF)를 사용하였다. MMF는 기쁨, 긍정적 느낌, 삶의 만족도에 관한 내용의 긍정적 정서(positive emotions),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y		n (%)
Gender	Male	27 (11.0)
	Female	219 (89.0)
Major	Speech-language pathologist	149 (60.6)
	Early childhood teacher	97 (39.4)
Grade	1	94 (38.2)
	2	55 (22.4)
	3	60 (24.4)
	4	37 (15.0)
Age	≤ 24 years	87 (35.3)
	25~34 years	65 (26.4)
	35~44 years	47 (19.1)
	45 years ≤	47 (19.1)
Previous degree	High school graduate	121 (49.2)
	Associate degree	55 (22.4)
	Bachelor's degree	70 (28.5)
Living arrangement	Living with family	181 (73.6)
	Dormitory living	11 (4.5)
	Living alone	48 (19.5)
	Living with roommates	6 (2.4)
Economic activity	Yes	150 (61.0)
	No	96 (39.0)
Learning motivation	Getting a job	118 (48.0)
	Academic achievement	58 (23.6)
	Career change	44 (17.9)
	Other	26 (10.6)
Alone time	< 1 hours	47 (19.1)
	1~3 hours	102 (41.5)
	3 hours <	97 (39.4)
Hobby	Yes	151 (61.4)
	No	95 (38.6)
Discussing concerns with family	Yes	216 (87.8)
	No	30 (12.2)
Family closeness	High	165 (67.1)
	Medium	77 (31.3)
	Low	4 (1.6)
Discussing concerns with friends	Yes	236 (95.9)
	No	10 (4.1)
Friendship closeness	High	167 (67.9)
	Medium	75 (30.5)
	Low	4 (1.6)
Academic performance	High	46 (18.7)
	Medium	161 (65.4)
	Low	39 (15.9)
Sleep duration	≤ 5 hours	50 (20.3)
	6~9 hours	192 (78.0)
	10 hours ≤	4 (1.6)
Sleep quality	High	47 (19.1)
	Medium	143 (58.1)
	Low	56 (22.8)
Total		246 (100.0)

흥미와 관심 및 몰입 정도에 관한 내용의 몰입(engagement), 타인으로부터의 도움 및 지원 정도와 개인적 인간관계에서의 만족도에 관한 내용의 관계(relationships), 의미 있는 삶의 주도 및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부여, 삶의 방향성 설정에 관한 내용의 의미(meaning), 목적 성취를 향한 진보 및 스스로 설정한 목표 달성과 책임 완수에 관한 내용의 성취(accomplishment) 등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Kim, 2015; Kim & Hwang, 2015; Ryu, 202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각 하위 요인별 3문항씩 총 15문항과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를 묻는 전반적 행복(overall happiness) 1문항,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10점)'까지 10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척도의 문항 내적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적합치도(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92로 나타났다(Kim, 2015). 다차원적 행복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Questionnaire information

Factors	Questions	n	Cronbach's α
Positive emotions	4, 8, 15	3	.87
Engagement	3, 9, 14	3	.70
Relationships	5, 10, 13	3	.73
Meaning	1, 7, 12	3	.72
Accomplishment	2, 6, 11	3	.73
Overall happiness	16	1	-
Total		16	.92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25년 4월 1일에서 4월 20일까지 대구 및 경북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언어치료 및 유아교육 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글 폼(google forms)을 활용한 연구 설명문 및 설문지를 제작한 후, 대구 및 경북지역 대학의 유아교육학과와 언어치료학과의 협조를 요청하여 링크주소를 배포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는 연구 설명문을 통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기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를 체크한 후, 설문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설문 문항 중 단어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행복' 영역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기술하였다. 결과, 총 256명의 응답 자료가 회수되었으며,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 6명, 불성실한 응답 4명의 자료는 제외하고 최종 246명의 설문내용을 분석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모든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IBM SPSS statistics

26.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및 행복 관련 변인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분류하였다. 둘째, 대학 생활의 행복감 및 하위요인별 행복감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의 특성 변인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학 생활의 행복감

예비언어재활사 및 예비유아교사들의 대학 생활의 행복감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반적인 행복감의 평균은 10점 만점에 7.13(± 2.13)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신은 어느 정도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니까?(질문 10)'에 7.61(± 2.20)점으로 가장 높은 행복감을 보였으며, '당신은 도움이 필요할 때 남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도움 및 지원을 받습니까?(질문 5)' 항목에서 가장 낮은 행복감 점수인 6.35 (± 2.25)점으로 나타났다.

2. 하위요인별 행복감의 정도

연구 참여자들의 영역별 행복감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반적인 행복감의 평균은 10점 만점에 7.13

(± 2.13)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몰입'이 7.14(± 1.7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의미' 7.10(± 1.85)점, '관계' 7.06(± 1.88)점, '긍정적 정서' 6.93(± 2.01)점 순이었다. '성취'는 6.89(± 2.01)점으로 가장 낮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Table 4. Sub-factors of happiness

Factor	<i>M</i>	<i>SD</i>
Positive emotions	6.93	2.01
Engagement	7.14	1.74
Relationships	7.06	1.88
Meaning	7.10	1.85
Accomplishment	6.89	1.75
Overall happiness	7.13	2.13

3. 특성 변인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특성 변인에 따른 분석을 하였을 때 성별, 전공, 학년, 연령, 학력 등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밖에 행복감의 차이가 나타난 변인은 다음과 같다.

1) 거주 형태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연구 참여자의 거주 형태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족과 생활', '기숙사 생활', '혼자 자취', '룸메이트와 생활' 등,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거주 형태 집단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가 '관계' 영역에서 유의

Table 3. Level of happiness

(*N*=246)

No.	Question	<i>M</i>	<i>SD</i>
1	Overall, to what extent do you lead a purposeful and meaningful life?	7.01	2.10
2	How often do you feel that you are making progress towards achieving your goals?	6.64	2.13
3	How often are you immersed in what you are doing?	7.04	2.07
4	Overall, how often do you feel joy?	6.78	2.17
5	How much help and support do you receive from others when you need assistance?	6.35	2.25
6	How often do you achieve the important goals you set for yourself?	6.54	2.02
7	Overall, how much do you feel that what you do in your life has value and meaning?	7.24	2.07
8	Overall, how often do you have positive feelings?	7.04	2.24
9	Overall, to what extent do you have interest and curiosity in any particular matter?	7.04	2.08
10	How much do you feel you are loved?	7.61	2.20
11	How often do you fulfill your duties?	7.49	1.84
12	How much do you feel that you are living with a sense of direction in life?	7.04	2.07
13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personal relationships?	7.22	2.08
14	How often do you lose track of time while doing something you enjoy?	7.33	2.02
15	In general, how satisfied do you feel with your life?	6.96	2.07
16	Considering everything as a whole, how happy do you think you are?	7.13	2.13

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LSD 사후검정 결과, '혼자 자취' 집단이 '가족과 생활' 집단에 비해 전반적 행복, 관계, 의미, 긍정적 정서, 성취영역에서 유의하게 행복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Living arrangement status

Category	LWF ^a M (SD)	DL ^b M (SD)	LA ^c M (SD)	LWR ^d M (SD)	F	LSD
P	6.75 (2.02)	7.27 (1.94)	7.43 (1.99)	7.66 (1.34)	1.834	c>a
E	7.02 (1.78)	7.21 (1.83)	7.46 (1.61)	7.94 (.92)	1.255	
R	6.86 (1.86)	7.57 (1.98)	7.54 (1.90)	8.33 (1.11)	3.008*	c>a
M	6.95 (1.85)	7.21 (1.67)	7.54 (1.90)	7.94 (1.28)	1.754	c>a
A	6.76 (1.73)	6.87 (2.02)	7.34 (1.81)	7.11 (.88)	1.432	c>a
O	6.92 (2.13)	7.54 (2.20)	7.66 (2.07)	8.33 (1.63)	2.401	c>a

Note. P=positive emotions; E=engagement; R=relationships; M=meaning; A=accomplishment; O=overall happiness; LWF=living with family; DL=dormitory living; LA=living alone; LWR=living with roommates.
* $p < .05$

2)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연구 참여자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이 '몰입', '의미', '긍정적 정서', '성취' 영역에서 유의하게 '행복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Table 6. Economic activity status

Category	Yes M (SD)	No M (SD)	t
P	7.14 (1.95)	6.59 (2.06)	2.101*
E	7.34 (1.69)	6.81 (1.79)	2.329*
R	7.24 (1.80)	6.78 (1.99)	1.855
M	7.30 (1.86)	6.79 (1.81)	2.125*
A	7.09 (1.68)	6.57 (1.81)	2.287*
O	7.26 (2.09)	6.91 (2.18)	1.257

Note. P=positive emotions; E=engagement; R=relationships; M=meaning; A=accomplishment; O=overall happiness.
* $p < .05$

3) 대학 진학 동기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연구 참여자의 대학 진학 동기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보

기 위하여 '취업', '학문적 성취', '직업 전환', '기타' 등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Learning motivation

Category	GJ ^a M (SD)	AA ^b M (SD)	CC ^c M (SD)	Other ^d M (SD)	F	LSD
P	6.77 (2.08)	7.54 (1.79)	6.71 (1.85)	6.62 (2.24)	2.430	b>a,c
E	6.87 (1.84)	7.66 (1.51)	7.18 (1.62)	7.11 (1.82)	2.682*	b>a
R	7.03 (1.93)	7.35 (1.78)	6.77 (1.79)	7.03 (2.06)	.825	
M	6.82 (1.86)	7.86 (1.50)	6.97 (1.89)	6.87 (2.11)	4.519*	b>a,c,d
A	6.61 (1.74)	7.36 (1.74)	6.99 (1.74)	6.94 (1.65)	2.550	b>a
O	7.04 (2.20)	7.60 (1.94)	6.90 (1.87)	6.84 (2.50)	1.336	

Note. P=positive emotions; E=engagement; R=relationships; M=meaning; A=accomplishment; O=overall happiness; GJ=getting a job; AA=academic achievement; CC=career change.
* $p < .05$, ** $p < .01$

대학 진학 동기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가 '몰입' 영역($p < .05$)과 '의미' 영역($p <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LSD 사후검정 결과, 긍정적 정서 영역에서 '학문적 성취' 동기 집단이 '취업' 및 '직업 전환' 동기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몰입' 영역에서 '학문적 성취' 동기 집단이 '취업' 동기 집단에 비해 높았고, '의미' 영역에서는 '학문적 성취' 동기 집단이 '취업', '직업 전환', '기타' 집단에 비해 모두 높았다. 또한, '성취' 영역에서도 '학문적 성취' 동기 집단이 '취업' 동기 집단에 비해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Alone time

Category	< 1 hours ^a M (SD)	1~3 hours ^b M (SD)	3 hours < ^c M (SD)	F	LSD
P	6.46 (2.16)	7.21 (1.82)	6.86 (2.10)	2.349	b>a
E	6.75 (1.76)	7.31 (1.76)	7.14 (1.70)	1.693	
R	6.46 (2.07)	7.16 (1.70)	7.24 (1.94)	3.043*	c,b>a
M	6.82 (1.90)	7.42 (1.72)	6.90 (1.93)	2.601	
A	6.60 (1.68)	7.13 (1.64)	6.78 (1.87)	1.824	
O	6.59 (2.58)	7.27 (1.87)	7.23 (2.12)	1.845	

Note. P=positive emotions; E=engagement; R=relationships; M=meaning; A=accomplishment; O=overall happiness.
* $p < .05$

4) 개인 시간을 갖는 정도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연구 참여자의 하루 중 개인 시간 정도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1시간 미만', '1~3시간', '3시간 초과'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개인 시간 정도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가 '관계' 영역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LSD 사후검정 결과, '1~3시간' 집단이 '1시간 미만' 집단에 비해 긍정적 정서가 높았으며, '3시간 초과' 및 '1~3시간' 집단이 '1시간 미만' 집단에 비해 관계 영역의 행복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5) 취미 여부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연구 참여자의 취미 여부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Table 9. Hobby status

Category	Yes M (SD)	No M (SD)	t
P	7.08 (2.02)	6.69 (1.99)	1.470
E	7.37 (1.66)	6.77 (1.81)	2.634**
R	7.26 (1.84)	6.74 (1.92)	2.091*
M	7.24 (1.88)	6.87 (1.81)	1.523
A	7.07 (1.77)	6.60 (1.67)	2.044*
O	7.35 (2.13)	6.77 (2.08)	2.062*

Note. P=positive emotions; E=engagement; R=relationships; M=meaning; A=accomplishment; O=overall happiness.
* $p < .05$, ** $p < .01$

취미 활동이 있는 집단이 '몰입' 영역에서 유의하게 행복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1$), '전반적 행복'($p < .05$), '관계'($p < .05$), '성취' 영역($p < .05$)에서도 취미 활동이 있는 집단에서 유의하게 행복감이 높았다.

6) 가족과의 관계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연구 참여자가 가족과 고민을 상담하는지 여부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가족과 고민 상담을 하는 집단이 '전반적 행복', '의미', '관계', '긍정적 정서' 영역에서 유의하게 행복감 정도가 높았으며($p < .001$), '몰입' 영역에서도 가족과 고민 상담을 하는 집단이 유의하게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으며($p < .05$).

연구 참여자의 가족 친밀감 정도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중·하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가족 친밀감은 '긍정적 정서', '관계', '의미', '성취', '전반적 행복' 영역에서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01$), '몰입' 및 '의미' 영역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1$).

입' 영역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1$). LSD 사후검정 결과, 가족 친밀감 '상' 집단이 '중'과 '하' 집단에 비해 '전반적 행복', '관계', '의미', '긍정적 정서', '성취' 영역에서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몰입' 영역에서도 가족 친밀감 '상' 집단이 '중' 집단에 비해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able 10. Discussing concerns with family status

Category	Yes M (SD)	No M (SD)	t
P	7.10 (1.97)	5.67 (1.84)	3.734***
E	7.23 (1.75)	6.48 (1.58)	2.198*
R	7.24 (1.84)	5.74 (1.68)	4.221***
M	7.25 (1.83)	5.98 (1.64)	3.590***
A	7.03 (1.73)	5.86 (1.55)	3.503***
O	7.35 (2.07)	5.53 (1.85)	4.550***

Note. P=positive emotions; E=engagement; R=relationships; M=meaning; A=accomplishment; O=overall happiness.
* $p < .05$, ** $p < .01$

Table 11. Family closeness

Category	High ^a M (SD)	Medium ^b M (SD)	Low ^c M (SD)	F	LSD
P	7.36 (1.85)	6.07 (2.06)	5.50 (1.64)	13.015***	a>b,c
E	7.41 (1.67)	6.57 (1.78)	6.91 (1.79)	6.278**	a>b
R	7.61 (1.67)	5.96 (1.78)	5.33 (2.22)	26.534***	a>b,c
M	7.44 (1.81)	6.42 (1.76)	6.00 (1.86)	9.264***	a>b,c
A	7.22 (1.67)	6.22 (1.72)	5.91 (1.34)	9.917***	a>b,c
O	7.65 (1.94)	6.07 (2.11)	5.75 (2.21)	17.217***	a>b,c

Note. P=positive emotions; E=engagement; R=relationships; M=meaning; A=accomplishment; O=overall happiness.
** $p < .01$, *** $p < .001$

7) 친구와의 관계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연구 참여자가 친구와 고민을 상담하는지 여부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친구와 고민 상담을 하는 집단이 '관계' 영역에서 유의하게 행복감 정도가 높았으며($p < .001$), '긍정적 정서' 영역에서도 유의하게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으며($p < .01$).

연구 참여자의 친구 친밀감 정도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중·하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친구 친밀감은 '긍정적 정서', '관계', '성취', '전반적 행복' 영역에서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01$), '몰입' 및 '의미' 영역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1$).

Table 12. Discussing concerns with friends status

Category	Yes M (SD)	No M (SD)	t
P	7.00 (1.97)	5.26 (2.29)	2.703**
E	7.16 (1.73)	6.46 (2.07)	1.247
R	7.14 (1.86)	5.06 (1.23)	3.492***
M	7.14 (1.84)	6.20 (2.13)	1.575
A	6.92 (1.74)	6.13 (1.82)	1.403
O	7.17 (2.13)	6.10 (1.91)	1.564

Note. P=positive emotions; E=engagement; R=relationships; M=meaning; A=accomplishment; O=overall happiness.
p<.01, *p<.001

Table 13. Friendship closeness

Category	High ^a M (SD)	Medium ^b M (SD)	Low ^c M (SD)	F	LSD
P	7.32 (1.88)	6.21 (1.98)	4.16 (2.25)	12.773***	a>b>c
E	7.40 (1.63)	6.62 (1.83)	5.91 (2.45)	6.442**	a>b,c
R	7.55 (1.75)	6.06 (1.75)	5.16 (1.00)	21.137***	a>b,c
M	7.35 (1.80)	6.63 (1.83)	5.33 (2.34)	5.974**	a>b,c
A	7.16 (1.72)	6.39 (1.67)	4.83 (1.13)	8.375***	a>b,c
O	7.52 (2.06)	6.32 (2.08)	6.00 (1.41)	9.382***	a>b,c

Note. P=positive emotions; E=engagement; R=relationships; M=meaning; A=accomplishment; O=overall happiness.
p<.01, *p<.001

LSD 사후검정 결과, '긍정적 정서' 영역에서 친구 친밀감 '상' 집단이 '중'과 '하' 집단에 비해, '중' 집단이 '하' 집단에 비해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관계', '전반적 행복', '성취' 영역에서는 친구 친밀감 '상' 집단이 '중'과 '하' 집단에 비해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몰입', '의미' 영역에서도 친구 친밀감 '상' 집단이 '중'과 '하' 집단에 비해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8) 학업 성적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연구 참여자의 학업 성적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중·하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4와 같다.

학업 성적은 '의미', '성취' 영역에서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몰입'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p<.01). 또한, '긍정적 정서', '전반적 행복'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p<.05).

Table 14. Academic performance

Category	High ^a M (SD)	Medium ^b M (SD)	Low ^c M (SD)	F	LSD
P	7.54 (2.40)	6.87 (1.90)	6.43 (1.82)	3.424*	a>b,c
E	7.68 (2.08)	7.15 (1.66)	6.44 (1.43)	5.497**	a,b>c
R	7.57 (2.33)	7.01 (1.79)	6.65 (1.59)	2.664	a>c
M	7.81 (2.18)	7.09 (1.74)	6.30 (1.59)	7.259***	a>b>c
A	7.58 (2.10)	6.89 (1.65)	6.07 (1.32)	8.313***	a>b>c
O	7.84 (2.53)	7.05 (1.97)	6.59 (2.08)	4.055*	a>b,c

Note. P=positive emotions; E=engagement; R=relationships; M=meaning; A=accomplishment; O=overall happiness.
*p<.05, **p<.01, ***p<.001

LSD 사후검정 결과, '긍정적 정서' 영역에서 학업 성적 '상' 집단이 '중'과 '하' 집단에 비해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몰입' 영역에서는 학업 성적 '상'과 '중' 집단이 '하' 집단에 비해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영역에서는 학업 성적 '상' 집단이 '하' 집단에 비해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 수면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연구 참여자의 수면시간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5시간 이하', '6~9시간', '10시간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5와 같다.

수면시간은 '관계' 영역에서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LSD 사후검정 결과, '6~9시간' 수면 집단이 '5시간 이하' 수면 집단에 비해 '긍정적 정서', '관계', '전반적 행복'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SD 사후검정 결과, '긍정적 정서' 영역에서 수면의 질 '상' 집단은 '중' 집단에 비해, '중' 집단은 '하'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몰입' 영역에서는 수면의 질 '상' 집단이 '중'과 '하'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관계' 영역에서는 '상' 집단이 '중' 집단에 비해, '중' 집단이 '하'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 '성취' 영역에서는 '상' 집단이 '중'과 '하'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 행복'에서는 '상' 집단이 '중' 집단에 비해, '중' 집단이 '하'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의 수면시간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중·하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6과 같다. 수면의 시간은 '긍정적 정서', '몰입', '관계', '성취', '전반적 행복' 영역에서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의미' 영역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p<.01).

Table 15. Sleep duration

Category	≤ 5 hours ^a	6~9 hours ^b	10 hours ≤ ^c	F	LSD
	M (SD)	M (SD)	M (SD)		
P	6.36 (2.25)	7.07 (1.93)	7.33 (1.61)	2.536	b>a
E	7.00 (1.77)	7.18 (1.75)	6.66 (1.12)	.376	
R	6.20 (2.20)	7.27 (1.74)	7.33 (1.61)	6.759***	b>a
M	7.00 (2.07)	7.13 (1.81)	6.91 (1.34)	.125	
A	6.69 (2.06)	6.95 (1.67)	6.58 (1.34)	.492	
O	6.52 (2.51)	7.27 (1.99)	8.00 (2.16)	2.840	b>a

Note. P=positive emotions; E=engagement; R=relationships; M=meaning; A=accomplishment; O=overall happiness.
*** $p < .001$

Table 16. Sleep quality

Category	High ^a	Medium ^b	Low ^c	F	LSD
	M (SD)	M (SD)	M (SD)		
P	8.00 (1.70)	6.88 (1.93)	6.14 (2.10)	11.934***	a>b>c
E	7.98 (1.43)	7.00 (1.75)	6.76 (1.77)	7.561***	a>b,c
R	8.12 (1.44)	7.04 (1.82)	6.20 (1.96)	14.590***	a>b>c
M	7.88 (1.67)	7.04 (1.81)	6.59 (1.94)	6.613**	a>b,c
A	7.68 (1.57)	6.81 (1.67)	6.42 (1.89)	7.363***	a>b,c
O	8.46 (1.62)	7.10 (2.00)	6.07 (2.23)	18.472***	a>b>c

Note. P=positive emotions; E=engagement; R=relationships; M=meaning; A=accomplishment; O=overall happiness.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학습자의 행복한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이들의 행복감 및 특성변인에 따른 행복감을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예비언어재활사 및 예비유아교사 24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학 생활의 행복감

성인학습자 중 예비언어재활사 및 예비유아교사들의 전반적인 행복감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생활에 대한

행복감'의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대학생활 중 타인으로부터 받는 도움 부분에서는 가장 낮은 행복감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인 삶의 만족도가 5.8점(10점 만점)을 기록하여, 41개 OECD 국가 중 35위라는 연구(Shin & Won, 2024)와 비교할 때 본 연구 대상 성인학습자의 행복감 수준은 한국인의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인학습자 대상의 행복감 연구(Ju & Yi, 2024)에서는 함께 배우는 과정에서 행복한 삶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 대상(Kim et al., 2016)의 행복감 평균(71.4점)과 유아교사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Kim & Kim, 2015)에서의 평균(5점 만점에 3.70, $SD=.49$)을 비교했을 때도 행복감의 정도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의 행복감은 평균 이상이라는 선행 연구(Kim & Kim, 2018) 결과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선행 조사(KRIVET, 2024)에서 나타난 OECD 평균에 비하면, 성인학습자의 행복감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선행 연구(Choi, 2022; Lee & Kim, 2019; Park & Choi, 2022; Won & Lee, 2015)에서는 행복감이 직무 수행과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행복감이란 개인의 특성에 맞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보고된다(Nam & Lee, 2015). 즉, 행복감은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통해 개발 가능한 능력임을 고려(Kim et al., 2016)해 볼 때, 미래의 직무수행자인 성인학습자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Kim & Hwang, 2015; Oh & Kim, 2015). 따라서 성인학습자의 동아리 활동이나 팀워크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대학 자체의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행복감은 하나의 역량이자 습관으로 볼 수 있으며, 전문가가 자신의 삶과 일에 의미와 목표를 두고 직무를 수행할 때, 대상자 역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Nam & Lee, 2015). 따라서 성인학습자의 행복감을 높이는 것은 전문 직업인의 직업 만족도 향상뿐 아니라, 직무 대상자의 긍정적인 정서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행복을 위한 노력은 개인의 정서적 상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직무 수행의 효율성 또한 높인다고 밝혀진 바 있다(Oh & Kim, 2015). 따라서 유·아동을 포함한 직무 대상자의 행복감과 깊은 관련이 있는 예비언어재활사와 예비유아교사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행복 관련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2. 하위요인별 행복감의 정도

행복감의 하위요인 분석에서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흥미와 관심 및 몰입 정도를 나타내는 '몰입'과 '의미', '관계', '긍정적 정서'의 순으로 행복감을 갖고 있었으며 그 중 '성취'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Kim과 Kim(2018)의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들의 행복감 하위요인 중 '관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다음으로 '성취', '의미', '몰입', '정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

이는 일반 대학생과 성인학습자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성인 학습자는 직업적 스트레스, 만학도로서의 다양한 어려움, 일, 가정 병행으로 인한 학업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직업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열망이 더욱 강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특성인 만학도로서 늦은 시기에 대학생활을 새로 시작하게 됨에 따라, 학업과정에 의미를 두고, 유사 직종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성취'에서 보인 결과는 행복감의 하위요인 중 상대적인 결과이며, 성인학습자의 학업동기에 따른 개별 목표설정 등의 상담 및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 특성 변인에 따른 행복감

연구 참여자의 성별, 전공, 학년, 연령, 이전 학력에 따른 행복감은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연령에 따라 유아교사의 행복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 연구(Oh & Kim, 2015)와 일치한다. 그러나 30~35세 집단의 행복감은 학력이 대학원 이상이었을 때 행복감이 높았으며, 고졸인 경우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Oh & Kim, 2015)와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에서는 고졸과 전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또한 젊은 연령층의 행복감 지표가 비교적 높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는 연구(Shin & Won, 2024)와도 다른 결과이다. 성별 요인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행복감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Shin, 2021)와도 차이가 있었다. 이는 현재 공통적인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인학습자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선행 연구(Kim & Kim, 2018)에 따르면 행복감은 외부 환경에 의해 변화되기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성별, 연령, 경제적 수준, 교육, 직업, 결혼 유무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보다 심리적 요인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행복감은 질 높은 교육과 대상자의 행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Song, 2020). 따라서 언어재활사와 유아교사를 양성함에 있어 행복감에 심리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 훈련식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적용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거주 형태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가 관계 영역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자 자취' 집단이 '가족과 생활' 집단에 비해 '전반적 행복', '관계', '의미', '긍정적 정서', '성취' 영역에서 유의하게 행복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대상자들의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인 경우 나이가 들수록 1인 생활의 만족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Shin, 2021)와 일맥상통한다. 1인 가구 발생배경은 다양한데 남녀의 만혼, 여성 교육 수준 향상, 성 평등 인식의 확대, 도시화 개인적 삶에 대한 열망 등에 기인하고 있다(Shin, 2021). 그러나 1인 가구는 56~60세, 다인 가구는 60세 이상에서 행복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으나, 1인 가구의 경우 모두 40세 미만 특히 20~30대가 행복감이 가장 높다는 결과(Shin, 2021)와는 일치하였다.

대학 진학 동기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가 '몰입' 영역과 '의미'

영역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행복감에 영향을 주고, 주관적 행복감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희망감'이라는 연구(Shin & Won, 2024)와 맥을 같이 한다. 자신의 전공에 대한 가치와 만족감은 전문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Song, 2020). 따라서 전문성에 대한 확고한 비전 제시를 통해 성인학습자들이 미래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믿음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대학에서의 사례 깊은 도움이 필요하다.

가족과 고민 상담을 하는 집단 및 가족 친밀감, 친구와 고민 상담을 하는 집단은 '전반적 행복', '의미', '관계', '긍정적 정서', '몰입' 등 모든 영역에서 행복감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친구 친밀감에서도 '긍정적 정서', '관계', '성취', '전반적 행복', '몰입', '의미' 영역에서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행복감을 높게 예측하며 유대감, 대인관계, 교우관계 등의 요인이 결정적이라는 선행 연구(Shin & Won, 2024)와 일치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관계가 행복감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타인과 민감하고 개방적이며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은 전문가의 행복감에 대한 긍정적 예측 변인이 된다(Kim & Kim, 2016). 선행 연구(Oh & Kim, 2015)에 따르면 유아-교사 상호작용과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가 높은 경우,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높았으며, 유아-교사 상호작용과 원장 및 동료와의 관계가 교육적 효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 하였다. 따라서 특별히 학업을 위해 자취나 혼자 생활하는 성인학습자에 대한 개별상담 및 교우관계 맺기, 동아리 활동 활성화 등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업 성적은 '의미', '성취' '몰입' 영역과 '긍정적 정서', '전반적 행복'에서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학교생활에서 다양한 학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얻는 학업성취도가 행복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Choi, 2022), 간호대학생의 경우 성적에 따라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Kim et al., 2016)와 일치한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연구(Kim et al., 2016) 결과를 반영하여, 전공 관련 실습 및 체험활동, 교육봉사 등을 통한 실무의 기회 확대 등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교과 및 비교과활동 개선 노력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행복감과 전문성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Song(2020)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학습자의 특성인 자기주도적 학습을 포함한 문제해결 학습모듈 및 온라인 수업 개발, 이를 통한 자기성찰 활동 등을 도입하는 것도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수면시간은 관계 영역에서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수면시간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Choi, 2022)와 일치한다. 그러나 1인 가구일 때의 수면시간은 7시간 미만이 많았고, 우울감이 다인 가구보다 높았다는 연구 결과(Shin, 2021)를 토대로 행복감을 위해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게 하는 수업운영계획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행복감이 학교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Choi(2022)의

연구 결과는 성인학습자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여러 측면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행복감은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학습자가 스스로 개발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특성도 있다(Song, 2020). 이에 언어재활사 및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 학생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면, 직무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큰 효능감을 느끼고, 직무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가 향후 행복감이 높은 언어재활사와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

- Cha, M., & Lee, Y. (2024). The relationship among subjective happiness, cognitive flexibility, and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in preschool teachers. *Journal of Parent Education, 16*(3), 253-272. doi:10.36431/JPE.16.3.11
- Cho, K.-S., & Nam, K. W.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appiness and the ego-resilience of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5*(4), 161-178. uci:G704-000814.2011.15.4.010
- Choi, K. I. (2022). Verification of longitudin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happiness and sleep time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13*(2), 1211-1222. doi:10.22143/HSS21.13.2.86
- Chung, Y. K., & Kim, J.-R. (2018). Factors to disturb adult learner's e-learning persistence: A case study of H-Cyber University in Seoul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2), 109-122. doi:10.14400/JDC.2018.16.12.109
- Han, J., Kim, S., Ha, S. E., & Shin, I. C. (2014). Ambivalent effects of social relations on subjective well-being.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8*(5), 1-24. uci:G704-000205.2014.48.5.001
- Han, J. H. (2014). The impact of self-esteem and professional recognition on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8*(4), 271-287. uci:G704-000814.2014.18.4.009
- Hwang, J. (2017). Relationship among child-care teacher's happiness, self-efficacy, and teacher-young children interac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21*(3), 7-25. doi:10.22590/ecee.2017.21.3.7
- Joo, J. (2025). A study on the subjectivity of adult learners' motivation for university admission and learning: Focused on adult learners majoring in social welfare at K University. *Journal of Advanced Technology Convergence, 4*(2), 193-204. doi:10.23152/JATC.2025.04.02.193
- Ju, H. J., & Yi, B. J. (2024).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happy life of adult learners in the daily life of graduate school. *Korean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Studies, 15*(4), 37-64. doi:10.20512/kjace.2024.12.31.37
- KESS (Korea Education Statistics Service). (2025). *Statistical Analysis of Education Data-Higher Education Statistics*. [https://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23&menuSeq=3895&publSeq=44&menuCd=101515&itemCode=02&menuId=2_2_2&language=\(2025.04.15.\)](https://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23&menuSeq=3895&publSeq=44&menuCd=101515&itemCode=02&menuId=2_2_2&language=(2025.04.15.))
- Kim, B.-M., & Kim, M. (2016). A study on the social interaction abilities and happines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5*(4), 169-192. uci:G704-002046.2016.15.4.012
- Kim, E., Yang, Y.-H., Lee, H., & Yu, M. (2016).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 Korea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3), 294-303. doi:10.5977/jkasne.2016.22.3.294
- Kim, H.-S., & Baik, E. (2024). The mediating effect of happi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er efficacy and implementation of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Journal of Children's Media & Education, 23*(1), 281-294. doi:10.21183/kjcm.2024.03.23.1.281
- Kim, J. J., & Kim, B.-M. (2018). The Influenc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cademic self-efficacy and grit on happines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 Sociology, 8*(11), 7117-728. doi:10.35873/ajmahs.2018.8.11.068
- Kim, M. (2015).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haracter strengths-based happiness enhancement program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Doctoral dissertation). Pusan University, Busan.
- Kim, M., & Hwang, H. (2015). Application and effects of character strengths-based happiness enhancement program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5*(5), 301-333. doi:10.18023/KJECE.2015.35.5.014
- Kim, M., & Kim, B.-M. (2015). Path analysis of the influential factors for the happines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4*(4), 99-120. uci:G704-002046.2015.14.4.008
- Kim, S., & Kim, S. (2025). The relationship among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 participation hindering factors,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of adult learners majoring in speech-language pathology.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34*(2), 117-126. doi:10.15724/jslhd.2025.34.2.117
- KRIVE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24). *OECD PIAAC 2nd Cycle 2023 Adult Skills Survey Key Findings Research Data 2024-19*. Sejong: Author.
- Lee, B. J., & Park, S. (2019).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happiness during graduate school life: Focusing on students juggling work and study in the doctoral program.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5*(5), 199-226. doi:10.24159/joec.2019.25.5.199
- Lee, E., & Kim, S.-L. (2019).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job stress, happiness, and teaching efficacy on teacher-child interaction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8*(5), 437-447. doi:10.5934/kjhe.2019.28.5.437
- Lee, J.-C. (2014).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adult learner amo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directed learning, major commitment, and happiness: Focusing on university students.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7*(4), 85-113. doi:10.22955/

ace.17.4.201411.85

- Lyubomirsky. (2008). *How to be happy: The how of happiness: A scientific approach to getting the life you want* (H. K. Oh, Trans.). Seoul: Knomad.
- Ministry of Education. (2024). *2024 budget major project cost explanation document*. Sejong: Author.
- Nam, K. W., & Lee. E. (2015).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happiness of no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9(5), 255-277. uci:G704-000814.2015.19.5.001
- Oh, J. Y., & Kim, K. R. (2015). A study on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from the viewpoint of ecological theorie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19(3), 29-51. uci:G704-002073.2015.19.3.010
- Park, E. J., & Choi, J. Y. (2022). The association with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and the teacher-child inter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ability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9(3), 29-51. doi:10.22155/JFECE.29.3.29.51
- Ryu, E. J. (2021). *The effect of character strengths and playfulness on happiness of early childhood teacher* (Master's thesis). Pusan University, Busan.
- Seligman, M. E. P. (2006). *Positive psychology* (I. J. Kim & M. S. Woo, Trans.). Anyang: Mulpure.
- Seligman, M. E. P. (2020).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M. S. Woo & S. U. Yoon, Trans.). Anyang: Mulpure.
- Shin, M. (2021). Comparison of Happiness in the adults by household types : Analysis of data from the community health survey(2019). *Journal of Wellness*, 16(4), 277-284. doi:10.21097/ksw.2021.11.16.4.277
- Shin, Y.-B., & Won, H.-H. (2024). Exploring the latent growth and predictors of happiness in early adulthood. *The Journal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25(1), 445-470. doi:10.15818/ihs.2024.25.1.445
- Song, M.-S. (2020). The relationships amo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ies, happiness, and teaching professionalism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2(3), 159-177. doi:10.15409/riece.2020.22.3.8
- Song, Y., & Lee, S. (2024). A metaphor analysis of happy people and conditions of happines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23(3), 29-52. doi:10.30761/ecoce.2024.23.3.29
- Won, J. H., & Lee, S. B. (2015). The effec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ego-resilience on teacher efficacy and teaching flow.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5), 273-295. uci:G704-000666.2015.20.5.014

언어치료 및 유아교육 전공 성인학습자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

박순호¹, 김시영^{2*}¹ 대구보건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² 대구보건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언어치료학 및 유아교육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행복감의 정도와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 이들의 학업만족도와 개별 행복감 제고를 위한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방법: 예비언어재활사 149명과 예비유아교사 97명, 총 246명이 본 연구에 참여했다. 행복감 측정을 위해 다차원적 행복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IBM SPSS statistics 26.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및 행복 관련 변인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 생활의 행복감 및 하위요인별 행복감 정도는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 변인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전반적인 행복감의 평균은 7.13(±2.13)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몰입'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의미', '관계', '긍정적 정서', '성취' 순이었다. 특성 변인에 따른 분석을 하였을 때 성별, 전공, 학년, 연령, 학력 등에 따른 행복감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거주형태, 경제활동 여부, 대학진학 동기, 개인시간 정도, 취미여부,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업성적, 수면 정도는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성인학습자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면 학생들의 학업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직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언어재활사와 예비유아교사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가 향후 행복감이 높은 언어재활사와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검색어: 성인학습자, 행복감, 몰입, 주관적 안녕감

교신저자: 김시영(대구보건대학교)

전자메일: ksy2188@hanmail.net

게재신청일: 2025. 05. 26

수정제출일: 2025. 06. 25

게재확정일: 2025. 07. 31

ORCID

박순호

<https://orcid.org/0000-0002-6523-2342>

김시영

<https://orcid.org/0000-0002-7204-9300>

참고 문헌

교육부 (2024). 2024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세종: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 (2025). 교육통계분석자료집-고등교육통계연. [https://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23&menuSeq=3895&publSeq=44&menuCd=101515&itemCode=02&menuId=2_2_2&language=\(2025.04.15\)](https://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23&menuSeq=3895&publSeq=44&menuCd=101515&itemCode=02&menuId=2_2_2&language=(2025.04.15))

김미진 (2015). 성격 강점에 기반한 유아교사의 행복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미진, 김병만 (2015). 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경로분석. *생태유아교육연구*, 14(4), 99-120.

김미진, 황해익 (2015). 성격 강점에 기반한 유아교사의 행복 증진 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 *유아교육연구*, 35(5), 301-333.

김병만, 김미진 (2016). 유아교사의 사회적 상호작용능력과 행복감의 관계. *생태유아교육연구*, 15(4), 169-192.

김시영, 김시현 (2025). 언어치료전공 성인학습자의 학업 지속의도와 참여저해 요인, 교육만족도의 관계. *언어치료연구*, 34(2), 117-126.

김은만, 양영희, 이해영, 유미 (2016).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의 영향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2(3), 294-303.

김정주, 김병만 (2018). 예비유아교사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그것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11), 7117-728.

김혜숙, 백은영 (2024).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아동권리준중실행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23(1), 281-294.

남기원, 이은형 (2015). 초임유아교사의 행복감 특성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9(5), 255-277.

류은주 (2021). 유아교사의 성격강점과 놀이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은주, 최지영 (2022).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과 전문성 발달의 매개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9(3), 29-51.

송미선 (2020). 예비유아교사의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행복감과 교직전문성 인식과의 관계 분석. *한국유아교육연구*, 22(3), 159-177.

송연숙, 이수연 (2024). 예비유아교사의 행복한 사람과 행복의 조건에 관한 은유 분석. *생태유아교육연구*, 23(3), 29-52.

신미아 (2021). 가구유형별 성인의 행복감 비교: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분석. *한국웰니스학회지*, 16(4), 277-284.

신윤범, 원효현 (2024). 초기 성인의 행복감 변화 및 예측 요인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25(1), 445-470.

오재연, 김경란 (2015). 생태학 이론 관점에서 본 유아교사의 행복감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9(3), 29-51.

원지현, 이순복 (2015).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이 교사효능감과 교수물입에

-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0(5), 273-295.
- 이봉재, 박수정 (2019). 대학원 생활 속 행복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재직 대학원 박사과정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5), 199-226.
- 이은주, 김상림 (2019). 유아교사의 교사행복감과 교수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가 교사-유아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8(5), 437-447.
- 이종찬 (2014). 성인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 자기주도학습, 전공몰입, 행복 간의 구조적 관계: 대학생을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7(4), 85-113.
- 정용균, 김중렬 (2018). 성인학습자의 e-러닝 학업지속 장애요인에 대한 사례연구: 서울소재 H 사이버대학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6(12), 109-122.
- 조경서, 남기원 (2011). 유아의 행복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5(4), 161-178.
- 주지혁 (2025). 성인학습자의 대학진학 및 학습 동기 관련 주관성 연구: K 대학의 사회복지학 전공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미래기술융합논문지**, 4(2), 193-204.
- 주현정, 이병준 (2024). 대학원 일상에서의 성인학습자의 행복한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성인계속교육연구**, 15(4), 37-64.
- 차미숙, 이유미 (2024). 유아교사의 주관적 행복감 및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16(3), 253-272.
- 최경일 (2022).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한 아동의 행복감과 수면시간 간의 종단적 상호 인과관계 검증. **인문사회21**, 13(2), 1211-1222.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 **OECD PIAAC 2주기 2023 성인스킬조사 결과 연구자료 2024-19**. 세종: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한종화 (2014). 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과 전문성 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8(4), 271-287.
- 한준, 김석호, 하상응, 신인철 (2014). 사회적 관계의 양면성과 삶의 만족. **한국사회학**, 48(5), 1-24.
- 황종귀 (2017). 보육교사의 행복감, 자기효능감과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간의 관계.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1(3), 7-25.
- Lyubomirsky. (2008).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오혜경 역). 서울: 지식노마드.
- Seligman, M. E. P. (2006). **긍정 심리학**(김인자, 우문식 역). 한국긍정심리연구소. 안양: 물푸레.
- Seligman, M. E. P. (2020). **플로리시. 긍정심리학의 웰빙과 행복에 대한 새로운 이해**(우문식, 윤상운 역). 한국긍정심리연구소. 안양: 물푸레.